

김영록 지사 “행정통합, 누구도 손해 없도록 설계”

한국노총 광주본부 찾아 노동계 의견 청취 “현장 목소리 듣고 합리적 대안 마련 총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3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찾아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노동계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노동계의 우려와 요구를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이날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2026년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뒤 윤종해 의장을 비롯한 산별 노조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 이후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노동계는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사·조직 재편 문제를 중심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민소식 광주시교육청 노동조합 위원장은 통합 이후 교육청 직원들의 근무지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전달하며, 고용 안정과 인사 원칙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 열악한 사무환경을 언급하며 시설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적용 등 노동자 복지 정책을 통합 논의와 병행해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노동 여건과 생활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다.

김 지사는 “모든 것은 상식을 기준으로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 특정 지역이나 단체, 개인에게까지 손해나 피해

가 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 이후 예상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숙원사업인 노동인권회관 건립 문제도 거론됐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통합 이후 여건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즉각적인 약속보다는 단계적 검토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를 비롯해 경제계, 시민사회, 공공기관 종사자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이 구조 개편에 그치지 않고 상생과 균형발전의 틀 속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3일 도청 접견실에서 이신원 한국노총 전남본부 의장 이임에 따른 공로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주철현, 전남광주 청년정착 패키지 공약 제시

원스톱 컨트롤 타워 ‘청년미래지원센터’ 확대 구축 맞춤형 공공임대 1만호·로코노미 펀드 1000억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사 후보 경선에 나선 주철현 의원(사진)이 청년 지역이탈 현실을 반영한 ‘청년정착 패키지 공약’을 내놨다.

23일 주 의원은 설 명절 전후 전남·광주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청년이 ‘명절 손님’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인으로 돌아와 부모 세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대공존 가족공동체’ 모델을 제시했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를 단일 요인으로 보지 않고 주거 불안과 취업·창업의 단절, 생활 인프라 격차가 겹친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 공약이다.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청년정책 지원 시스템을 수요자 관점으로 재설계해 주거·일자리·창업·정착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전남과 광주, 시·군·구, 기관·대학별로 흩어진 청년정책을 동일한 기관

에서 상담하고 신청하며 최종 지원까지 연결하는 원스톱 컨트롤 타워 구축이다.

주 의원은 기존 청년센터들이 민간위탁 수준의 중간 역할에 머물러 정책 연계를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남광주 청년미래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개인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고 끊임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일자리와 창업을 지역경제로 연결하기 위한 전남광주형 로코노미(Local-Economy) 펀드 조성도 공약에 담겼다. 펀드는 1000억원 규모로 시작해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통합특별시와 시·군·구, 공기업, 금융기관, 민간투자



자,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재원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분야에서는 청년(근로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내걸었다. 청년임대주택을 시·군과 LH,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 방식으로 택지 조성, 공공기관 이전단지 및 산업단지 주변 개발 과정에서 일정 물량을 확보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 인력 채용 과정에서 지역인재 우선 채용 가점제 확대 적용도 함께 언급했다. 주 의원은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들어오게 하고 머무는 지역’으로 바꾸는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농기원, ‘AI 농촌지도’로 현장 혁신 시동 238억 투입 10개 시·군 센터 첨단화·데이터 컨설팅 전환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기후 위기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지도 체계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다.

기존 ‘기술 전달’ 중심에서 데이터에 근거한 ‘현장 컨설팅’ 체계로 무게중심을 옮겨,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농촌지도사의 역할 재정립이다. 농업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지도사의 기능을 고도화해 단순 기술 보급을 넘어 정밀 진단과 맞춤형 처방이 가능한 전문 컨설팅 체계를 구축한다.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작목별·농가별 상황에 맞는 처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학원형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총 238억원을 투입해 1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기후변화 대응 첨단 실습온실 △과학농업 기술관 △디지털 교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술 실증, 데이터 분석, 현장 지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디지털 농촌지도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한다는 목표다.

정밀 진단 기능도 강화한다. 40억원을 들여 종합검정실에 자동원소분석기 등 전

문 장비를 확충하고, 토양 및 양분 상태를 수치화해 분석 정확도를 높인다. 분석 결과는 농가별 시비 처방과 재배 관리 지도에 즉시 반영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AI 기반 농촌지도 체계의 안착을 위해 전문인력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지도사의 전문성을 기존 품목 중심에서 품목·기술·AI·디지털 활용 역량을 결합한 융복합 전문성으로 확대한다. 직급과 업무 수준에 맞춘 단계별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AI 활용 농촌지도 실무 역량 강화 등 6개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데이터 활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번 혁신을 통해 AI 기술을 접목한 농촌지도 서비스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농업인이 체감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관수 농촌지도과장은 “농촌지도사는 농업 현장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AI와 디지털 기술로 역량을 강화한 지도사들이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무등산자락서 8090 웨딩파티 선풍

광주관광공사, 오늘부터 ‘응답할랑가? 1988’ 첫 운영

광주 무등산 자락에서 8090 감성을 되살린 ‘웨딩파티’가 선보인다.

광주관광공사는 조선대학교 RISE사업단과 함께 24·25일 무등산권과 무등파크호텔(자산유원지)에서 1박 2일 체류형·참여형 상품 ‘레트로 환승여행: 응답할랑가?’를 선보인다.

이전 프로그램은 광주RISE와 연계한 청년 실무 참여형 관광 모델이다. 문화예술·관광 인력양성 과정 수료자와 청년 (예비) 기획자, 인플루언서 등 MZ세대 40여 명이 기획·연출·운영 전 과정에 참여한다. 단순 체험이 아닌 청년이 주도하는 현장형 실험 프로젝트다.

컨셉트는 ‘레트로 웨딩’이다. 참여자들은 복고 헤어·메이크업과 의상을 갖춰 입고 8090 결혼식 하객이 되어 피로연과 북고댄스, 별반 음악회를 즐긴다. 이튿날에는 무등산 팔각정에서 광주 전경을 보고, 보리밭 한상과 로컬 카페를 체험하는 자언·미식·문화 결합형 체류 코스로 이어진다. 노후 인프라는 복고 감성을 입힌 문인형 공간으로 재해석됐다.

가? 1988’을 시범 운영한다.

이전 프로그램은 광주RISE와 연계한 청년 실무 참여형 관광 모델이다. 문화예술·관광 인력양성 과정 수료자와 청년 (예비) 기획자, 인플루언서 등 MZ세대 40여 명이 기획·연출·운영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이전 사업은 대학·호텔·공공 거버넌스 협력 모델로 추진된다. 조선대와 광주여대 학생들이 공연·연출·의상·메이크업·현장 운영을 맡고, 전문가 그룹이 상품성을 점검한다.

공사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무등산권 지오스테이(Geo-Stay) 사업과 연계한 상설 체류형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남부권 특화 관광자원과 결합한 레트로 테마 확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6·3 지방선거 브리핑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예비후보(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사진)가 23일 설성 김중호 선세 추모비가 소재한 광양읍 우산공원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선언문을 통해 “광양은 시대의 전환 때마다 도약해온 도시였다”며 “하지만 지금 광양은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선제적 대응이 매우 부족해 4년 전에 비해 본 예산 규모가 줄고 투자유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광양의 3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AI 시대, 경제는 강하게, 삶은 더 풍요롭게’라는 슬로건으로 광양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광양을 호남 제1경제도시를 만들어 철강은 친환경, 물류는 스마트하게, 에너지는 미래 지향적으로 바꾸고 둘째로 신산업 투자유치로 세수와 국·도비를 늘려 예산 2조원 시대를 설계한다. 셋째로 투자가 소득되고 소득이 지역상권으로 이어지는 지역 내 3순환 경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황경아 남구청장 예비후보 “재개발·재건축 완성” 공약 발표

황경아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사진)는 23일 ‘행정 혁신을 통한 남구의 재개발·재건축 완성’을 6·3 지방선거 제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황 예비후보는 “남구는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이 60%에 달하는 ‘노후 주거지 밀집 지구’이며, 일부 구도심은 70%를 넘어선다”며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수년째 답보 상태”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구역 지정 이후 5년 이상 진척이 없는 곳, 추진위원회 승인 후 장기간 계류 중인 구역이 여럿이다”며 “조합은 갈등을 겪고, 주민은 기다림에 지치고 있다. 그 사이 남구의 도시 경쟁력은 정체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수년간 남구 행정은 절차를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했고, 중립을 이유로 갈등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주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행정이 결단하지 않으면, 결국 주민의 재산권이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선 즉시 구청장 직속 ‘재개발 혁신 TF’를 설치하겠다”며 “정비구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00일 내 지역 원인을 공개하며, 인허가 처리 기한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김대원, 북구청장 선거 출마 공식화 “새로운 북구 미래 비전 제시”

김대원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사진)이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그는 “북구는 광주의 심장이며 삶의 터전이지만 인구 유출과 경기 침체, 기후위기, 도시재생 과제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 다시 뛰는 북구를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과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회 보좌관 등을 지낸 정책통임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과 국가 정책을 연구하고 실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북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으로는 북구청사 이전을 제시했다.

그는 “쇠퇴한 광주역 일대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북구청사를 광주역 인근으로 이전해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행정 중심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서방천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박철호, 광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칠 터”

박철호 정진욱 국회의원 정무특보(사진)가 광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박 예비후보는 최근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남구 제1선거구 광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박 예비후보는 “남구는 말 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완성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현장을 알고, 행정을 알고, 국회를 아는 사람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봉선·주월·월산 일대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 교통·주차난 해소, 생활 SOC 확충 등 주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월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월산지역 우·오수 분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냄새 걱정 없는 월산권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철호 예비후보는 “그동안 쌓아온 중앙정부 및 시정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남구의 숙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터”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